

# 감세방안 잇단 이견...세금정책 혼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감세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당장 이견이 잦아 국민들에게는 세금정책이 혼란스럽게 비쳐지고 있다. 또 보편적인 방안 대신에 특정 대상만 혜택을 입는 감세 방안이 많아 세금 구조를 더욱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 黨政, 보육료 공제·양도세 경감 등 ‘판소리’ 특정대상만 감세 혜택...세금구조 왜곡 심화

◇잇따른 감세 방안, 혼란 더해  
5·31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인 '새로마지 플랜'에서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고쳐줬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주요 부분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차질 부담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개편 방안을 놓고 당장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전대비 재산세 증가를 상한선을 10%로, 3억원 이하 주택은 5%로 묶는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당정은 올해 일몰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를 연장하기로 했고,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완화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정치권의 요구를 감안할 때 나머지 45개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조항의 연장 여부도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결국 연장 쪽으로 결론날 일몰도래 조항이 이미 밝힌 10개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중 15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서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방안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부분 감세, 세금구조 왜곡 심화  
최근 정부 또는 열린우리당이 내놓고 있는 세금부담 경감 방안은 보편적인 감세 정책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만 적용되는 것들이어서 세금구조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는 맞벌이 부부 가구의 보육료 세액공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연간 보육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 공제가 맞벌이 부부

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초 정부가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 방침을 정했다가 '맞벌이 세금'이라며 거센 반발을 맞았던 전례에 비추면 이번에는 외벌이 가구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 경감도 '투기와 상관없는 서민주택'을 6억원 주택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나 '투기 의사가 없었는데도 집값이 올라'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상대적 불만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거래세 인하도 정부가 세수를 고려해 신규분양분 주택의 거래세만 내린다면 실거래가 적용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급증했다며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간 거래세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조세전문가는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간을 바로잡는 일은 소홀한 채 문제가 생기는 곳마다 땀질식으로 대처해 조세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지급도 중장기조세개혁 등 골격은 놔두고 조그만 것들만 손대려고 하고 있어 세금구조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생보사 상장 초안 Q&A

# 상호회사 아닌 주식회사 상장차익 배분 필요없어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생보사 상장관련 공청회를 열고 생보사 상장방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자문위가 발표한 생보사 상장 방안과 관련, 그 동안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문답풀이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경영 전반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시장감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본확충수단이 다양화돼 재무건전성이 높아진다. 증권시장에서도 우량기업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생보사 상장문제는 어떻게 논의돼 왔나.  
▲1990년 9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이익 중 주주 몫은 30% 이하로, 계약자 몫은 40% 이상으로, 나머지 30%는 내부유보토록 하는 등 재무부지침에 따라 재평가이익을 처리했다. 그러나 1990년 당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상장이 무산됐다. 이후 1999년 삼성차 처리 문제와 관련해 생보사 상장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됐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상장방안이 검토됐지만 여러 의견이 제시돼 2000년 12월 상장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2003년 민간자문위를 구성해 생보사 상장이 논의됐지만 다양한 이견으로 인해 결국 조정안이 나오지 못하다가 올해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가 설치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공청회 이후 상장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기본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기본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상장 규정 개정을 마련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생보사 간에 차별화된 상장방안이 마련되나.  
▲생보사의 성격과 관련된 논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생보사에 적용되는 만큼 모든 생보사에 대해 동일한 상장관련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 '상장차익' 배분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됐으나 배분의 대상은 '상장차익'이 아닌 '기업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가치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자에게 상호회사의 사원인 주주로서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계약자에게 기업가치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안에서는 계약자에게는 주주의 지위가 아닌 채권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채권자 지위에서 그간 돌려받지 못한 몫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안을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 수입물가 5월보다 0.9% 올라...오름폭 둔화

수입물가가 5월보다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수출입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0.9% 상승, 3월 이후 5개월째 오름세가 계속됐다.  
전월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2월에 -1.2%에서 3월 0.6%로 상승세로 돌아선 후 4월 2.5%, 5월 2.2%를 나타냈으나 6월에는 오름폭이 둔화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6월의 환율변동효과를 제거한 계약동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으로는 전월대비 0.4% 하락했다. 작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9.2%로 5월의 11.3%보다는 오름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 물가통계팀의 윤재훈 과장은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환율상승 효과를 빼면 수입물가 상승 추세가 거의 막바지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7월에는 상승세가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8% 상승, 5월 대비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작년 동월 대비로도 1.3% 올라 두달째 상승했다.  
/연합뉴스



“삼복더위엔 ‘전복 삼계탕’을”  
초복을 일주일 앞둔 13일 서울 은평구 이마트 은평점에 전복을 넣은 삼계탕이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정몽구 회장 퇴원...경영 복귀

## 18일께 업무개시...해외 프로젝트·파업 등 현안수습책 주목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13일 병원에서 퇴원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영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로써 현대차의 해외공장 건설 프로젝트나 노조파업 등 산적해있는 현안이 정 회장의 복귀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현대차와 세브란스병원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앞으로 한남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 진행될 재관과 회사의 업무를 구상할 예정이다. 정 회장의 퇴원은 지난달 28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직후 입원한 지 15일

만이다.  
정 회장은 입원기간 정밀검진과 함께 간단한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퇴원 이후에도 당분간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오늘 오전 퇴원해도 좋다는 주치의의 통보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앞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퇴원후 이번 주말과 내주초로 이어지는 연휴기간 자택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한 뒤 이르면 18일께 양재동 현대차 사옥

에 출근해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경영복귀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나 현대·기아차의 해외공장 건설 프로젝트 등의 현안들이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회장은 경영에 복귀하면 내부조직을 추스리고 실추된 대외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며 그동안의 경영공백으로 지연돼왔던 현대차 체코공장이나 기아차 미국 조지아공장의 착공식 날짜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돼온 노조 파업으로 손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 회장이 복귀하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 가격담합 아파트 ‘시세 유보’ 딱지

### 4주간 시세정보 제한

앞으로는 가격 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4주동안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시세 유보’라는 딱지가 붙어 담합 행위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13일 부동산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12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산책, 국민은행 등이 참석했으며 아파트 담합이 확인되면 4주동안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 여부는 플랫폼이나 전단지 부착, 가두방송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교부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최종 판단해 정보업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상회 등을 통해 가격담합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입	연락처
대한생명보험(주)	2006 신입 및 경력 2기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3,200~3,400	07/15	011-9620-6805
이맥스	회계/경력직	고졸/경력2년	1,600~1,800	07/17	010-6730-7243
SK텔레콤	(광주) GR center 고객정보 관리 계약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7	02-6100-0114
일공오이닷컴(주)	프로그램 사용 업체관리 및 홍보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9	062-515-1052
(유)남일건설기술공사	카드전신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19	062-515-6090
텔레서비스(주)	하나로텔레콤 광주고객센터 인바운드상담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19	02-2163-4125
(주)담양온천	[담양리조트] 정규직 및 파트타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9	061-380-5016
(주)케이시스	(주)케이시스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20	062-236-1682
(주)형지퍼매일	CS강사(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7/22	02-3498-7672
(주)포에프	LED 제품 관련 영업사원	고졸/경력1년	2,000~2,200	07/23	062-973-1119
공전제과	판매, 영업, 매장관리, 캐셔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7/23	062-222-3477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와인 1병 = 자동차 1대

## 2000년산 '샤도 무통 로칠드' 1,500만원

웰빙 풍조를 타고 와인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병 가격이 자동차 한대 값에 맞먹는 1천500만원짜리 초고가 와인까지 등장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판중인 와인중에서 최고가인 제품은 롯데백화점 본점이 내놓은 2000년산 빈티지 '샤도 무통 로칠드' 5L 로 가격이 1천500만원에 달한다.

이 제품은 까베르네 소비뇽(86%)과 메를로(14%) 품종이 혼합되었으며,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숙성시켜 블랙 베리 등의 과일 향과 바닐라, 계피, 구운 향기가 풍부한 명품 와인이다. 샤도 무통 로칠드는 1945년부터는 유명 화가들을 선정해 매년 새로운 라벨을 붙여오고 있으며 2000년 빈티지는 종이 라벨 대신 제조사인 바론 필립 드 로칠드(Baron Philippe de Rothschild) 가문의 '아우그스부르그의 양'을 새겨 넣었다.  
/연합뉴스

